

외국기업 몰리는 중국의 농약시장

합작투자, 현지법인설립등 세계일류기업 다투어 진출

조사홍보부

12억 인구나 장구한 농업역사를 갖고있는 중국은 세계의 농약시장을 강력히 끌어당기는 힘을 행사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진전과 더불어 중국에서의 농약사업 기회가 점차 늘어나면서 세계 일류기업들은 합자,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중국의 농약시장을 겨냥한 사업전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다른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결코 외국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쉬운 국가가 아닌 점은 분명하다. 지적소유권 및 국내 메이커들과의 공평한 대우 등 해결돼야 할 과제 역시 많은 실정이다.

중국제품 아직은 품질이 문제 外資, 고도기술 투입 발전모색

중국의 농약시장은 최근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2년간 예측을 밀도는 매출을 기록한 이후, 현재 시장은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농약시장규모는 거의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우드메킨지는 1993년도 중국농약시장을 최종소비 수준에서 7억 달러로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92년에 비해

지난 8월
일본 화학공업일보는
중국 농약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기획 기사를 4화에 걸쳐
연재했다. 그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서는 7%감소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중국은 세계9위의 소비국인 것이다.

중국은 현재 살충제 시장만 10억 달러이지만 금세기 말에는 성장률을 어렵잖아 17%로 보더라도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미국의 몬산토사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폭넓게 농약이 생산되고 있어 소요량의 70~80%를 해결하고 있다. 나머지는 외국제품을 수입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자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제품의 품질과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오염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독일 헥스트레링아그레보차이나의 브린 사장은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화학제품시장회의에서 “중국은 많은 수의 공장들이 구

식 제법을 사용하고 있고 더욱이 저능률 또는 높은 독성, 혹은 이 두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중국 이외에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브린 사장은 또 “중국 제품중에는 유럽이나 일본제품의 복제품도 있지만 순도가 낮으며 이런 사실은 저능률 또는 환경에 커다란 부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국가환경보전국의 규제가 국내제품에 적용되면 중국제품의 대다수는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에 관한 환경기준이 낮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은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 수출시장에서는 다국적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브린 사장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중국 농약메이커들은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의 국제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래 외국에 합작투자를 할 때는 GIFAP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현실

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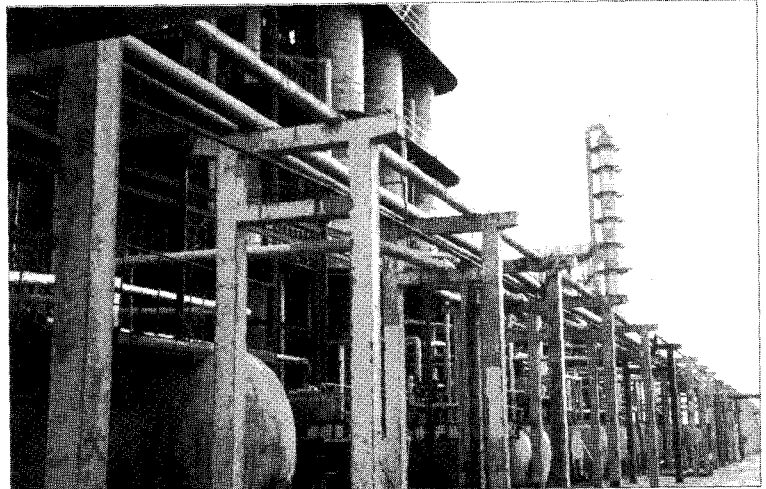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이라는 것이 그 효과와 사용자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선진국의 고도의 기술이 투입된 화학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외국과의 합자는 오히려 중국에 많은 것들을 제공해온 것이 사실이다.

유크라프, 듀폰 이미 성업중 내년에도 몇개사 가동 예정

현재 중국에는 외국과 합작투자한 농약회사가 2개나 가동중에 있다. 처음 설립된 것은 러셀 유크라프(아그레보의 자회사)와 중국의 천진총합농약창, 천진발해화학공업연합 2개사가 합자한 것으로 살충제 델타메스린을 1992년 중반부터 생산해 오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회사명을 아그레보 천진으로 바꾸었고 1996년까지 제초제 아닐로포스와 살충제 엔도설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설립된 합작회사는 듀폰농약상해로 듀폰, 상해농약창, 상해농약연구원의 3자 합자로 1992년부터 벼농사용 제초제인 벤셀푸론메칠을 생산하고 있다.

1996년에는 다시 몇개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도시바이그로는 시바의 농약사업부와 청도농약창이 55대 45의 합자로 19



최근들어 세계일류 농약기업들의 중국시장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OPDA (가벤다와 베노밀의 중간체) 합성공장.

94년 4월에 합의를 본 기업이다.

내년 산둥성 청도에 공장을 세워 살충제용 원제의 제조와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합작투자 사업은 시바의 농약사업부가 중국에서 체결한 것으로는 두번째이다. 첫 번째는 강소농업화학과 95대 5로 제품의 제조, 포장,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이 신설회사는 시바아그로(강소)로 소재지는 강소성이며 내년에는 가동이 가능하다. 제네카도 강소성 남통의 남통농약창과 85대 15의 합자로 제초제 그라목손 공장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공장은 연산 3천톤의 파라콰트원제를 생산하게 되며 1996년 중반쯤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제네카는 영국에서 들여온 제품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라목손은 과수, 수목, 줄뿌림작물에 사용되고 있다. "사천성에서는 그라목손이 벼 수확후 겨울작물을 일찍 재배하려할 때와 경지의 잡초제거에 주로 사용된다"고 제네카측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또 매출의 일부는 국영농장쪽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개인 농가쪽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제네카가 중국으로 수입하는 주요제품중의 하나가 카라테(람다싸이할로스린)이다. 주용도는 목화지만 과실과 채소용으로도 소비가 늘고 있다. 또한 오드람(모리네이트)은 중국 중부 및 북부에서 직파벼의 잡초제거에 사용

되고 있다. 이밖에 대두에 사용하는 발아후 제초제인 프렉스(폼세이픈)도 영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약제조업 분야의 합자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다만 그 속도가 당초의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1993년 11월에 바스프는 중국화학공업부와 중국시장을 겨냥한 농약의 연구개발 촉진 및 중국 내에서의 생산과 관련된 기본 협정에 서명했다. 바스프는 당시 많은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후 20개월이 경과한 지금 어느 하나도 성과를 거둔 것이 없다. 독일의 바이엘도 중국에서의 농약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비추고 있다. 바이엘 측 대변인은 “우리회사는 현재 중국시장에서의 협력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미 화학공업부, 농약부와 협의중”이라고 얘기했다.

수입탈피 현지생산으로 전환 美,佛 기업들 구제학 서둘러

프랑스의 롱프랑도 몇가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롱프랑 아그로케미칼차이나의 신임 로웨이 사장은 말한다. 롱프랑이 이미 소유한 주식회사 롱프랑차이나의 설립인가는 올 5월 폴트 사장의 중

국방문시 이루어졌다. “이 현지 법인으로 우리회사는 많은 사업기회를 얻었고 원재의 현지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로웨이 사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가장 기대되는 것은 두가지 원재가 시판에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이미 동남아시아 몇나라에서 등록을 마친 벼농사용 살충제 피프로닐이며 또 하나는 어찌면 중국에서 최초의 등록농약이 될지도 모를 벼농사용 제초제 옥사디아존이다.

롱프랑은 금년말까지는 중국에서 피프로닐을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판은 수입에 의해 96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다. 옥사디아존도 96년중 비이모작을 목표로 시판이 가능할 것이며 등록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두 제품은 우선은 수입으로 대체하겠지만 시장이 본격화되면 현지제조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롱프랑 사장은 설명했다.

롱프랑이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것은 82년으로 주요제품은 다음의 4종이었다. 즉 벼농사용 제초제 론스타(옥사디아존:원제를 수입 중국에서 제제화), 토양살충제 테믹(알디캡:면화 및 감귤류용), 면화용 경엽처리 살충제 라빈(치오디카브:면화 및 감귤류용)

및 채소용 살균제 로브랄(이프로디온)이다. 이밖에 벼, 땅콩용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도 현지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미국 듀폰은 이미 벼농사용 제초제의 합자회사를 설립했지만 그후 미국 농약메이저들의 대중국 투자는 거의 없었다. 미국의 다우엘랑코는 현재 「전체계획을 마무리한 단계」라고 한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다우엘랑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중국에 진출해 있었으며(상해와 북경에 연락사무소를 두었음) 합자회사를 설립할 구상도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적극적인 교섭은 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제초제시장, 특히 곡물, 대두, 유채용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살충제시장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몬산토도 94년부터 중국에서 제초제 라운드업(글라이포세이트)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2개이상의 중국기업과 합자회사 설립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의 국제농약부 오크센판즈 부사장겸 총지배인은 “우리회사는 중국에 국제규모의 글라이포세이트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장의 가동은 98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한다. 몬산토

의 또다른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벼농사용 제초제 마세트, 옥수수 대두용 제초제 라쏘, 옥수수용 제초제 하니스(아세트클로르)가 있다. 몬산토는 제품생산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합자대상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향후 3개월이내에 현실화할 전망이다.

듀폰은 농약에 대한 발표는 하고 있지 않다. 기존 합자회사의 업적에 대한 코멘트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듀폰측 대변인은 “다른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사업을 통해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업체들 기업운영에 장벽 국내기업과 공평한 대우요망

농약사업 그 자체 외에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걱정거리의 몇가지가 더 있다.

큰 것만 세가지 나열하면 일반 농가에 대한 시험, 유통, 정보전달 등이다. 더욱이 중국은 하부조직이 빈약하고 국토가 워낙 넓다.

때문에 제품시험은 각 지역의 조건에 맞추어 해야하지만 그것이 북부와 남부가 서로 다르다고 독일 쾰스트레빙아그레보차이나의 브린 사장은 지적한다. 사용량도 제초제를 예로 들면 흑룡강성과 광둥성이 크게 다르다.

다국적기업은 중국에 자체 시험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그레보는 이 목적으로 소형농장을 3개소에 건설중이다. 유통에 관한 콘트롤의 결여도 많은 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도 외국업체가 중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국영수입공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있다. 두개의 국영유통공사중 어느 하나를 거쳐서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이런 장애는 넘을 수 있으며 자가부담으로 유통체계를 구축할 기업의 설립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브린 사장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경향이 높은 현실에서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이 똑같이 공정한 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 제품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복제품보다도 나중에 등록된다든지 외국 제품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독성 자료를 제출해도 현지제품은 등록이 되고 있는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같은 걱정거리 외에 넘어야 할 또다른 벽으로 지적소유권,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도 없이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하룻만에 내도록 하고 있다.

“농약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듣고 있지만 그것은 실시되기 수개월전의 일이었다”고 브린사장은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측에서 이같은 사정에 대해 설명이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는 쪽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아랑곳없이 성장하는 중국시장을 향한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후상황으로 보아 확실하다. 진정한 농업개혁 없이 중국의 공업화가 진행되어 공업노임이 높아지게 되면 21세기에는 중국의 급증하는 인구를 부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드메킨지는 중국의 농약분야 성장은 대부분의 인접국들을 웃돌고 있지만 98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을 5%정도로 분석했다. 이 잡지는 “중국은 국외로부터의 영향에 따라 서서히 문호를 개방해 가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기회는 늘어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농약정보**